

# 보편적이지 않았던 ‘보편성’

계란말이가 아니라 닭알구이다<sup>5)</sup>

이종찬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

5) 『말과활동』 7호(2015년 2-3월)에 발표한 「계란말이가 아니라 닭알구이다」(줄고)를 다듬고 축약한 글이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시코쿠 방문을 앞두고 있다. 나는 지금 ‘관광(觀光)’이라고도, ‘여행(旅行)’이라고도 하지 않고 ‘방문(訪問)’이라 썼다. ‘관광’, 빛을 보러 가는 게 아니다. ‘여행’도 아니다. ‘여행’, 은밀한 군사주의적 함의(‘여’는 ‘군대’라는 뜻이다)가 불편하다. 관광도, 여행도 아니다. 나는 ‘방문’하려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찾아가(訪) 묻고(問) 싶은 것이다. 혹은 그냥 간단하게 ‘떠남’이라 해도 좋겠다.

떠난다는 것의 감각 자체가 내게는 참 생경한 것이다. 오랜 시간 지나치게 정주적(定住的)인 인간이어 온 탓이리라. 타자적인 것과의 마주침에 있어 타지로 떠나는 것 만한 기회가 또 있을까. 하지만 그 마주침은 내게 차라리 어색함, 불편함, 낮은 한숨의 감각에 더 가까운 무엇이다. ‘떠남’을 통한 자아실현의 소중한 기회’ 운운하는 류의 언설을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떠남의 도정(道程)에서 타자와 만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뭐랄까, 그냥 아픈 것이다. 그래서일까, 고작 일주일도 되지 않는 일본 일정을 앞두고서 나는 우습게도 유난스러운 기분에 자꾸만 빠져든다. 어찌 됐든 내일 오전 일찍 나는 히로시마로 떠난다. 다음의 단어들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다. ‘1945’, ‘히로시마’, ‘탈핵’,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친밀하지만 낯선 혹은 낯설지만 친밀한 ‘재일조선인’

히로시마와 시코쿠의 조선학교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재일 동포들은 일본의 조선학교를 ‘우리 학교’라고 부른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나와 같은 한국인에게 조선말<sup>6)</sup>을 쓰는 것을 수줍어한다고 들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조선말은 말하자면 외국어인 셈이다. 본토에서 온 나와 같은 이들에게 자신의 다소 어색한 조선말을 들려주기 어색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관점 자체를 전환하여 오히려 내가 그들의 조선말을 잘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말하는 자가 아닌 ‘듣는 자’가 감당해야 할 몫, 어떤 ‘책임(responsibility)’<sup>7)</sup>의 영역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왔다. 한국어를 모어로 갖고 있는 나에게 어쩔 수 없이 다소 생경하게 들릴 그들의 조선말이 결코 ‘결핍’의 언어가 아님을, 그들의 모어가 일본어라는 사실을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님을 나의 말이 아닌 태도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6) 나는 지금 ‘한국말’이라 하지 않고 표 내게 ‘조선말’이라고 썼다. ‘한국말’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말’이라 쓰는 것은 우리의 국민주의적 무의식에 개재된 자기중심적인 단어 선택이 될 수 있다. 역사적 연원을 조금만 살펴봐도 그것은 쉽게 이해가능하다. 일제 강점기에 이르면 더 기구한 연유로 일본어로 건너가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이들과 그 후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국인’이 아니라 엄연한 ‘조선인’이다. 왜냐하면 1897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개칭하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강제 체결되기 전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나라는 다름 아닌 ‘조선’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일조선인은 남북 혹은 북남 어느 쪽의 후손이든 커녕, 아주 간단한 이치만 따져보아도, 남한과 북한 혹은 북한과 남한 자체가 당시 아예 존재하지조차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러니 재일조선인들이 쓰는 말은 ‘한국말’이 아니라 ‘조선말’이다.

7) ‘책임(responsibility)’이 동시에 ‘응답가능성(responsibility)’의 문제이기도 한 것임을 예리하게 간파했던 이는 다카하시 데쓰야였다. 다시 말해, 응답가능성으로서의 책임. ‘나’라는 주체가 타인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나’ 바깥의 존재를 향해 정향(定向)되어 있어야 한다. ‘respond’ 뒤에 ‘to’라는 방향전치사가 따라붙는 것(respond to-)은 그와 같은 이유에서다.

인천국제공항 해당 게이트 앞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애초에 의도했던 항공편이 꼬여 어쩔 수 없이 후쿠오카를 경유해야만 한다. 그런데 후쿠오카라니 시인 윤동주가 아마도 일본 제국주의의 은밀한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옥사한 곳 하필이면 그곳을 경유하여 히로시마로 간다. 무료해진 나는 내 손에 쥐어진 여권을 바라본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여권 속 기재된 문장들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진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그렇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소지인”인 나는 일본을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받게 될 것이다. 국민국가라는 경계 내부의 멤버십을 선형적으로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다. 하지만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 내가 만나러 가는 조선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다.

## 2

일본에서 맞이하는 첫 아침이자 두 번째 날 부지런을 떨어 아침에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1945년 피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나무 앞에 놓인 방명록에 나는 무엇에라도 홀린 듯 이렇게 적어 두었다. “Remembering Hara Tamiki.” 하라 타미키를 기억하며. 하라 타미키 나에게 소중한 이름 원폭이 터질 당시 화장실에서 불일을 보고 있던 중이라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는 그날 자신이 목도한 하루 동안의 히로시마의 참상(나는 지금 빈약하기 짝이 없게도 ‘참상(慘狀)’이라 썼지만 우리의 언어로는 그것을 도저히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을 「여름의 꽃」이라는 단편소설로 남겼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조선반도에 원폭 투하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후 미련 없이 기차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밖에는 쓸 수 없었던 것이다. “하라 타미키를 기억하며.”

마침내 방문한 히로시마 조선학교. 이곳의 방문은 처음이지만 미술부 학생들이 손수 만든 영상을 통해 방문 전 학교의 풍경을 잠시 훑쳐볼 기회가 있었다. 적이 경사진 좁은 비포장 비탈길을 꽤나 오랜 시간 오르고 내려야 하는 히로시마 조선학교 학생들의 등하곶길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히로시마 학교에는 이와 별도로 학교로 이어지는 대로가 있었는데 버젓한 큰 길을 놔두고 왜 이 좁은 길을, 두 사람이 겨우 함께 걸어갈 수 있을 정도 너비의 좁은 길을 힘겹게 학생들이 오고가는 걸까. 자초지종을 들여보니 씩씩한 맥락이 놓여 있었다. 근처에 일본 학교가 있는데 큰 길로 등하교를 하다보면 그들과 마주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했다. 그 와중에 학생들 사이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충돌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었다. 외부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될 위험성 때문에 지금은 여학생들이 치마저고리를 학교 안에서만 입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일본 학생들이 커터칼로 여학생들의 치마저고리

를 갖는 아찔한 사건들이 심심치 않았다 한다. 영상 속에 묘사된 두 학생의 등교 장면에는 바로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정황이 맞물려 있었던 것이다. 히로시마 학교 강당에서 일박을 하고 난 다음날 교문 밖으로 나서면서 직접 그 길을 따라 내려와 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때 나는 저간의 슬한 시간들 속에 새겨져 있을 학생들의 수많은 발자취를 상상해보았던 것 같다.

히로시마 학교 고급부 남학생들과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둘러앉아 함께 점심 도시락을 먹었다. 메뉴 중에 계란말이가 있었는데,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깨보기 위한 요량으로 가벼운 이야기를 던졌다. “계란말이가 참 맛있네요.” 학생들은 잘 못 알아들었다. 잠시 뒤 알 수 있었다. 일본 동포사회에서 ‘계란말이’는 ‘닭알구이’로 통용된다는 사실을. 계란말이가 아니라 닭알구이라는 것을. 닭알구이. 당시에는 그저 재미있다 여기고 가볍게 웃으며 넘어갔지만 지나고 보니 이 자그마한 에피소드 하나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 나는 밥상에서 계란말이를 볼 때마다 히로시마의 그 현장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고는 말한다. “닭알구이가 참 맛있네요.” 함께한 이들이 뚱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자면 그제서야 무슨 굉장한 비밀이라도 발설하는 것인 양 득의만면해져서는 설명해준다. “재일조선인 분들은 계란말이를 닭알구이라 부릅니다. 계란말이를 계란말이라고만 부를 이유는 없지요.” 한국 땅에서 마주치는 계란말이를 계란말이라 하지 않고 닭알구이라 말하는 행위, 이 자그마한 시도가 나에게서는 재일조선인 분들과 일상의 층위에서 맺는 작은 연대에 다름 아니다.

일본 방문 세 번째 날이자 마지막 날 아침. 히로시마 조선학교에서 일찌감치 출발하여 시코쿠 섬으로 향했다. 전교생이 스무 명인 시코쿠 초중급조선학교를 방문하기 위해서다. 히로시마에서 버스로 세 시간을 내리달려 도착한 시코쿠 조선학교. 그곳의 막내이자 유일한 초급 1학년생 리량을 기억한다.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리량은 다른 2학년 언니오빠 세 명과 함께 복급 학년으로 운영되는 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다. 리량은 니은반침을 배우고 있었다. 하필이면 니은반침을. 아직 조선말이 서툰 리량이 열심히 혀를 모아 ‘산’을 발음하려 하지만 그 단어는 제대로 분절되지 못한 채 ‘상’에 가까운 소리로 들리고야 만다. 리량을 가르치는 선생님 또한 열심히 ‘산’을 가르치기 위해 반복해서 소리를 낸다. 하지만 그조차 온전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산’을 소리내어 읽는 리량에게서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에게서도. 고백하자면 구순구개열(보다 간단히 ‘언청이’라고 하던가)로 태어난 나에게도 어려운 발음들이 있다. 반복적인 노력과 치료 그리고 보철기구 덕분에 현재 그 어색함을 상당 부분 감출 수 있는 수준에까지는 이르렀으나 그것이 기술적인 위장이라는 데서 오는 근본적인 낭패감만큼은 지금도 어찌할 수 없다. 내 경우엔 대표적으로 리을받침이 그러하다. 어느 순간 나는 끝을 알 수 없는 생각에 빠져들고 있었다. 니은반침과 리을받침의 교집합은 가능할까. 그러나 그와 동시에 드는 자괴감. 지금 나는 니은반침으로 축약되는 재일조선인들의 저 신산한 역사적 삶의 질곡을 나의 순전히 개인사적인 맥락 안으로 폭력적으로 환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릴없는 물음들이 어지러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슬픔의 보편성이라는 차원에서 나의 리을받침과 이들의 니은반침은 만날 수 있을까.

리량의 니은받침과 나의 리을받침, 그것의 (가능할지 모를) 교집합에 대한 생각이 오래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나의 오갈 데 없는 상념은 좀체 출구를 찾지 못한다. 어느 순간 미술작가 정연두의 2014년 작 <블라인드 퍼스펙티브>를 떠올리게 되었다. 일본 이바라키현 미토예술관에서 2015년 2월 1일까지 열릴 예정인 정연두 작가의 개인전에 이 작품 <블라인드 퍼스펙티브>가 전시되어 있다 들었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아직 그것을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지 못했다. <블라인드 퍼스펙티브>는 2011년 3월 11일 이후의 후쿠시마를 주제로 한 설치 작품이다. 3.11 재앙의 잔해들로 세팅이 된 복도를 관람객이 3D 안경을 쓰고 걷는다. 그런데 안경을 통해 보여지는 것은 파국의 이미지 대신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답기 그지없는 숲 속 자연의 풍광이다. 전시장에서 한 관람객이 우연히 정연두 작가의 눈에 띈다. 복도의 끝까지 걸어간 한 중년의 일본 여성이 안경을 벗고 자신이 지나온 통로를 다시 되돌아오던 중 돌연 울음을 터뜨린다.

재일조선인 2세 서경식 선생과 정연두 작가와의 대담 자리에서 서경식 선생은, 정연두 작가의 <블라인드 퍼스펙티브>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서, 현재 미토예술관에서 열리는 전시를 후일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겠느냐고 정연두 작가에게 물었다. 정 작가는 한국과 3.11이라는 일본의 ‘문맥’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시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답했고, 서경식 선생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서경식 선생 본인은 이미 일본에서 전시를 보았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를 사로잡았던 생각이 있다. ‘고통의 보편성’이라는 테제. 서경식 선생께서 이와 관련하여 필시 더 덧붙일 이야기가 있겠다고 확신한 나는 정연두 작가와 서경식 선생 둘 모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놓았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예전 서경식 선생님의 어느 책 제목 하나가 짝 들어차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고통과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라는 문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물론 고통의 언어는 개별적입니다. 한마디로 고통의 문법은 1인칭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지요. ‘나’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 ‘너’의 아픔, 고통과 만나는 데 근본적인 단절의 지점이 존재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통과 슬픔의 보편적 계기에 대해서도 자꾸만 이야기를 꺼내놓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정연두 작가께서 미토예술관에서 현재 전시중인 작품을 언젠가 이곳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가 가령 이곳의 ‘밀양’과, ‘강정’과, 그리고 ‘광주’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건대, 슬픔과 고통의 보편적 계기를, 물론 결코 쉽지 않겠지만, 공동의 ‘우리’가 함께 모색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서경식 선생님은 ‘재일조선인’이라는 문제를 ‘디아스포라’ 일반의 지평으로까지 확장시켜 동시에 사유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재일조선인이 처한 문맥을 ‘재일조선인’이라는 상황의 특수성/개별성 안에 결코 가둬두지 않고서 그 너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일반성의 차원으로까지 밀어붙이기를 마다 않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

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경식 선생님은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를 왜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말이지요. 저는 그것이 고통과 슬픔의 보편성, 서경식 선생님 식으로 말하자면 ‘고통과 기억의 연대’의 차원을 모색하기를 멈추지 않으려는 어떤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느껴집니다.”

고통과 슬픔의 보편적 계기, 그것은 어쩌면 예술, 그러나 ‘주말의 여흥’(박준상)으로서의 예술이 아닌 실존의 떨림으로서의 ‘예술(藝術)’을 통해 가능하지 않을까.

#### 4

재일조선인 커뮤니티 내에도 차이와 모순은 있다. 현재 일본의 국영방송에서 PD로 재직 중인 영리 씨와 영화 <60만 번의 트라이>를 보고 난 뒤 나누었던 대화에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60만 번의 트라이>는 오사카 조고 럭비부의 일본 전국대회 활약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영화 속에는 초중급 학교 시절을 조선학교에서 함께 보냈지만 이후 일본학교로 옮겨가 이제는 서로의 삶의 터전이 바뀐 친구들 집을 조선학교 재학생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일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우리 학교’ 캠프에 초대하는 장면이 있다. 늦은 밤 몇몇의 조선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과거의 친구들 집을 방문한다. 조선학교 학생이 옛 소꿉친구에게 묻는다. “캠프에 오지 않을까?” 일본학교에 다니는 앳된 얼굴의 조선인이 어린 시절의 친구에게 답한다. “갈 수가 없어.”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다. “거짓말이 아니고 그 날은 진짜 학원에서 일정이 잡혀 있어.” “거짓말이 아니고”라는 표현에 한동안 머물게 된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말을 덧붙여야만 했다. 그것이 아프다. 조선학교 캠프 일정과 학원 일정이 실제로 겹치든 아니든 근본적으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일본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내가 지금 조선학교 캠프에 참석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의사를 알리는 것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만 하는 서글픈 관계. 서로의 차이가 단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다른 위치와 입장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또 이해해가고 있는 중일 것이다.

영리 씨는 <60만 번의 트라이>의 한국 개봉 첫 날 광화문의 한 극장에서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소개받은 친구다. 마침 여행차 한국에 방문한 것이라 했다. 내 가방에 붙어 있던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 ‘몽당연필’ 배지를 보고 관심을 보인 영리 씨에게 나는 즉시 그 자리에서 배지를 떼어 선물했다. 옆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던 지인이 “소지품을 건네주고 받으면 일 년 안에 연결된대요.”라 호의적인 농을 치면서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나는 거기서 한 술 더 떠 “일 년이나 기다려야 하나요?”로 응수했다.

불은하게도 나는 대각선으로 한 줄 앞선 좌석에 앉아 있던 영리 씨의 뒷모습을 영화 상영 중에 자주 흘끔거렸다. 그는 나중에 털어놓기를,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상영됐는데 한국에서 한국어로 다시 보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고, 관객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영화를 보면서 자꾸 뒤돌아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의 뒷모습에서 나는 어떤 무언의 표정을 엿보았던 것일까. 한국의 영화관에서 제일조선인 관련 다큐를 함께 보면서 그와 내가 놓인 각자의 위치성(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의 여성 그리고 한국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의 나)과 그로부터 기인한 유물론적 차이, 그러나 동시에 윤리적인 차이를 감각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그 차이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비로소 우정의 관계가, 말의 가장 바른 의미에서의 '우정(amitie)'의 관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어렵듯이 생각했던 것 같다.

영화를 보고 나온 뒤 영리 씨는 자신이 중급학교까지만 조선학교에 다녔다고, 자신 또한 영화속 캠프 초대 장면과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캠프 참가를 권유하는 과거 조선학교 친구의 방문을 자기도 받은 적이 있다는 고백이었다. 그 말과 함께 영리 씨는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고급학교 과정을 일본학교로 옮기기로 했을 때 자신에게 쏟아졌던 부정적 반응들, 그리고 때로는 “반 쪽바리가 되었네” 운운하는 폭력적인 언사들에 대해. 일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영리 씨는 그러나 일본 학교에서 예외적이게도 자신의 조선 이름을 끝까지 고수했다고 한다. 어쩌면 그는 조선학교에 있을 때도, 그리고 일본학교로 옮겼을 때도 ‘외부자’의 자리(이중의 방외인)에서 고독했을런지 모를 일이다. 영리 씨는 경험이 쌓이면 자신이 일하는 방송국에서 제일조선인 문제와 관련한 다큐를 제작하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한국을 떠났다.

## 5

한국인과 제일조선인. ‘민족’과 ‘국가’의 이 기묘한 불일치. 우리는 사용하는 언어가 같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언어가 다름에도 소통을 해야 할 관계가 먼저 존재하였기에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나누어야만 하는 것이다. 양자의 차이는 무척이나 중요하고 또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물론 이 경우 소통의 과정은 다소 어렵고 불편할 수밖에. 언젠가 제일조선인 서경식 선생께서 김상봉 선생과의 대담 때 남겼던 말들이 떠오른다. “단지 소통이 잘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통해야 하면 어려워도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는, ‘공통의 언어가 있고 그 바탕에서 소통하게 된다’가 아니라 ‘소통의 필요가 있고 그로부터 공통의 언어가 만들어져 간다’가 되어야 합니다.” ‘소통의 필요’ 다음에 도래하는 ‘공통의 언어’라, 과연 ‘우리’, 배타적이고 배외적이지 않은 (열린) 보편으로서의 ‘우리’는 공통의 언어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때가 온다면 그건 과연 언제일까.